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호 [루게 제24803호] 주제 104 (2015)년 1월 2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

우리 식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전력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전력생산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발전소들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야겠읍니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기자신 심장에 새기고 신년사파업관철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새차게 나래치고 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

전력공업부문 각지 당조직들에서

서자!》라는 전투적호를 비롯하여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한 직관전선들을 중요장소들과 전투현장들에 기동적으로 전개하였다.

연합기업소의 모든 전투장들이 당일군들의 화선정치사업무대로 전환되었다.

전력생산의 동등높은 청년적장에 자기 위치를 정한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로동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시키는 정치사업을 직장에 어 려운 위대한 수평관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적파업관 철부어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정 신력이 새해전결전에서 더욱 높 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운전직장, 화차직장을 비롯한 전투장들에 달려나간 당위원회 일군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함으로써 전투적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평안화력발전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총공격전의 앞

장에서 대오의 기수가 되어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열생산1직장으로 달려나간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현장에서 종업원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해설해주면서 전력생산자들의 전투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열생산2직장, 탄빈직장, 열생산비보수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전투현장들에 나간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파업관철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화선적으로 기백있게 벌려 모든 전투장들을 혁명적열의로 부글부글 끓여버리고 있다.

동평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전투장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표어

를, 접이식속보판과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을 비롯한 직관전선들을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불은기가 나뭇기처럼 하여 전투적 열의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당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독보와 해설사업 등 여러 계기와 공정을 리용하여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파업관철에 떨쳐나선 전력생산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파업관철을 위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공세를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선동맹을 비롯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더 높은 전력생산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표어

부르는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평안남도송배전부, 함경남도 송배전부, 강원도송배전부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교양, 도덕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속에 혁명의 불은 피, 애국의 더운 피가 펄펄 끓여버리고 있다.

그러하여 송배전부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에 맞게 급진사명지휘와 송배전설비들의 정상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중요단위에서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쟁강국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전력생산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전력공업부문 각지 당조직들의 화선정치사업은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만년 제약공장에서

최근 만년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현시 당에서 바라는대로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다그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다.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품질이 높은 의약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쟁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는 건물 및 시설의 꾸러기와 원료의 보관, 약품의 제조, 포장, 공급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지켜야 할 요구조건을 규정해놓은 기술규범이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모든 제약공장에서 GMP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인준사업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배인 총영선동무를 비롯한

공정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건

물한 편제 밑에 모든 요소들을 GMP의 요구에 부합되게 갖추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조영력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매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작업현장을 GMP화 실현을 위한 설계상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꾸리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왔다.

인민들에게 위생안전성이 보다 철저히 담보된 질 좋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려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의는 연관부문 과학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공정기술집단과 합심하여 과학자들은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달려들었다. 과학자들과 공정기술집단은 건강한 투쟁을 벌려 끝끝내 공장설정에 맞는 우리 식의 고성능 공기정화설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공장의 전력소비와 생산능력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만든 고성능공기정화기는 이

미 생산공정의 GMP화가 실현된 공장들에서 리용하고있는 공기정화설비에 비해 원가를 거의 1/5 O로 줄이면서도 매 방마다 설치하여 정화도의 급수에 따라 조종하므로 전력소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우리 식으로 고성능 공기정화설비를 기어이 만들어냄으로써 생산공정의 GMP화가 적극 다그쳐지고 공장에는 보다 과학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지금 공장에서는 품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수신품종의 의약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특히 《알브카인주사약》, 《황금어연기판지염교감약》을 비롯하여 발명 및 새 기술원리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달려들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효능이 뚜렷한 의약품생산을 높임으로써 뜻있는 올해를 혁명적대승으로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본사기자 김옥별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더 높은 농업생산성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대흥단군 창평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특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남포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물확보전투를 계속 줄기차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는 새로 건설하는 보림저수지마타과기공사를 끝내고 제방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신령저수지마타과기공사도 기본적으로 끝내었다.

이미 지난해까지 3개의 저수지공사를 완공하고 10여개의 굴포, 50여개의 우물파기를 진행하였으며 300여km의 기본물길과 1100여km의 지면물길기기를 기본적으로 끝낸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에 들어와 여러개의 양수장내부공사와

양수설비수리 및 보수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업의 농업을 비롯한 과학농업을 적극 받아들여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재로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의 농사경험과 교훈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시의 실정에 맞게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고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도록 작전과 혁명적인 대책을 세웠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공사지휘부가 조직되고 분공조직사업이 면밀히 진행되었으며 시안의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물확보전투에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 전공적으로 벌어졌다.

공사지휘부에서는 논면적이 많은 운천군에 물을 원만히 대주기 위한 공사와 태성호에 대동강물을 끌어올려 재우기 위한 공사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배 구역, 군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전투지휘를 총괄하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시당위원회에서 달려나간 물문제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있다.

시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타나지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천리마구역에서는 물확보전투를 마감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해고있다. 구역일군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순화강물을 끌어올려 저장하기 위한 2개의 큰 물주머니건설투쟁에 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사에 동원된 농업근로자들과 공장, 기업소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시안m의 토량을 처리하고 물주머니를 완성하였으며 물을 재우기 위한 3개의 양수장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지금 양수설비조립공사를 적극 추진

함으로써 물부족으로 애를 먹던 여러 농작의 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강강군의 일군들은 물길구간이 긴 조건에 맞게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열풍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50km에 달하는 기본물길기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항구구역 일군들은 현지를 넓이면서 물확보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이어 유양시굴착기와 운수기계를 총동원하여 기본물길기기를 끝내고 양수장내부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 물확보전투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겨울철 통나무생산에서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림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림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림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읍니다.》**

121호림업연합기업소에서

121호림업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과 수송을 맡은 단위들에 계획을 정확히 주고 차제보장사업을 앞세워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산에서 올라 화선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림철기판사, 자동차운전자들과 함께 운행을 달리면서 위호창조에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1월 통나무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부진림업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형이 복잡한 산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이나루를 직접 중적으로 벌려 림철기공으로 통나무생산의 면 앞장에서 기세좋게 달리고있다.

자서림업사업소에서는 지난해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한 경험을 살려 경여가 급한 산관지형을 리용한 합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121호림업연합기업소와 강원도림업관리국,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필승의 기상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와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생산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적인 통나무나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통나무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통나무생산사업소 자동차운전자들은 오늘날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신심에 충당되어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수송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삼수림업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강우위가 계속되는 혹한속에서도 산관지형을 리용한 통쏘이와 여러가지 합리적 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사이나루기설치를 부쩍 울리고 있다.

상창림업사업소에서는 림철 및 통나무제작의 보수정비를 잘하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사무원들과 각 직장의 로동자, 녀맹인들이 산에서 올라 통나무생산자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강원도림업관리국에서

강원도림업관리국의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산적통나무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관리국에 여러 단위위에서 통나무생산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이해주고있다.

안변림업사업소와 판교림업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력정서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나무베기를 적극 앞세우면서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산적통나무생산에서 현일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천재목재생산사업소에서는 로력과 설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통발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통나무생산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특경목재생산사업소에서도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 지역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동차와 트랙터를 비롯한 통나무운반에 필요한 물건기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통나무생산량을 부쩍 늘이고 있다.

회양림업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안의 림업사업소에서도 내부에비를 적극 동원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현일 성과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함경북도림업관리국에서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20일까지 새해 첫날 겨울철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통나무생산량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한것으로 된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할 열의에 넘쳐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이차 석탄증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원, 회령, 온성경목재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새해 첫날 생산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리도록 하였다. 이곳 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겨울철의 어려운 조건에 맞게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대용연료자동차와 소발구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매일 맡은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경성, 경흥, 명간경목재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통발나무를 생산하여 새해 첫날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경성, 경흥경목재생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게 온성, 경원지구관할림업사업소이며 관망들에 지체없이 통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석탄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고무해주었다. 특파기자 리은남

배수리와 배무이를 힘있게 다그친다

평안북도수산물관리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승으로 빛내야 하겠읍니다.》**

평안북도수산물관리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배수리와 배무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0척의 배들에 대한 대, 중, 소수리를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운 관리국에서는 지난해 12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울

해 첫 전투에서부터 배수리와 배무이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박운성, 황철호, 김일전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신하 수산사업소들에 내려가 새해 첫날 배수리와 배무이전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국에서는 올해 배수리와 배무이전투를 앞두고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발달발전기들을 예경성있게 준비하여 제관과 목재기공, 용접작업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하였다.

관리국에서는 일군들이 신하 수산사업소들을 달고 내거기 배수리와 배무이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

어주면서 기술적지도를 짜고 들었다.

배수리전투에서는 운전수산사업소가 앞서나가고있다.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은 여태의 발달발전기를 준비해 놓고 배수리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매일 배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어머이수령님의 령도적업이 깃들어있는 통암포수산사업소와 정주, 칠산수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에 모든 수산사업소들이 배수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국에서는 운전수산사업소, 통암포수산사업소, 칠산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서 고기잡이배를 새로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배무이전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관리국산하 수산사업소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배무이에서 현일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운전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은 합한 전투를 벌려 배무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으며 통암포수산사업소에서는 안강망신 한척과 운반신 한척을 새로 건조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물적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칠산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배무이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복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과 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특필

1월의 새 풍경과 더불어 꽃피는 인민의 기쁨, 고조되는 체육열기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아람차지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지난해말 통일거리운동센터 앞에 부지면적이 1만 수천㎡에 달하는 멋진 야외운동장을 건설하고, 그속에서 각종 경기들과 오락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오다, 그속에서 각종 경기들과 오락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오다, 그속에서 각종 경기들과 오락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오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명 그 어디에서나 이런 놀라운 현실이 너무나 레사롭게 펼쳐지기에 이다.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야외운동장의 정경은 바라보아도, 그속에서 각종 경기들과 오락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오다, 그속에서 각종 경기들과 오락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오다, 그속에서 각종 경기들과 오락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오다...

생각지 못한 최한한 대중운동센터를 일떠세워주시고도 이곳을 찾는 인민들의 즐거운 마음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갖기 마음쓰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현지도의 그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인민들이 명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신다는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지기를 위하여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들은 건설을 단숨에 해체케 드높은 열의를 안고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적속도,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대형화물자동차를 수천대의 퇴적물을 처리하고 공지를 번듯하게 정리한 이들은 지난해 4월 마침내 본격적인 전투에 달라붙었다.

통일거리운동센터의 종업원들은 봉사자 끝나면 현장으로 달려나와 낮에 밤을 이어 힘찬 전투를 벌려가오는 열정적인들과 힘과 열정을 합쳐갔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원답게 대오의 기수가 되어 언제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한편 돌격대원들의 정진력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날이 갈수록 야외운동장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운동장내의 부를 세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많은 사색을 기울이고 품을 들이였다. 건축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기교장밀에 전자오락장을 꾸리고 인민들이 저녁에도 운동을 할수 있게 여러개의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야외식사를 할수 있게 편하게 꾸러놓은 공원이 인공산을 만들고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야외운동장을 보기 좋게 둘러싼 울타리를 둘러싸고 은빛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천그루의 나무를, 드넓은 주차장과 운동을 하고나서 피로를 풀수 있게 꾸러진 목욕탕... 이런 불같은 투쟁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들은 안락으로 흠잡을데 없는 멋진 야외운동장을 일떠세우는데 완공하고야말았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통일거리운동센터 야외운동장을 빨리 운영하도록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몇달만에 친지가되면 놀라운 현실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말한다.

놀라운 속도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내 조국의 매일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울것이라고.

운동장의 그 어디에나 펼쳐져 있었다.

아직 좀 서둘러는 해도 배구장에서 서로 고무해주며 경기를 잘 운영해가는 대학생들의 모습도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고 로라스케트를 타고 온갖 기교를 펼쳐보이다가 주로를 향해 쓴살 같이 달리는 학생소년들의 모습도 대견하기 그지없었다. 오호 바이경주, 총소기 등 전자오락 설비들이 그쁘게 갖추어진 전자오락장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치고 운동을 하고나서 거뜨하게 목욕까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에는 문명의 기쁨을 누려가는 만족이 절제어려워졌다.

소박한 이 목소리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깃들여있다.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세상만부를 다 안겨주신다는 경에 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총성의 맹세가 비껴있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천민사자들의 뜨거운 전정이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 부친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웠다.

단 일곱 달 동안에

야외운동장앞에서 우리는 기쁨에 앞서 놀라움이 더 컸다.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문주에 이달린 목욕탕과 청량음료점, 훌륭하게 꾸러진 인공잔디축구장과 풍수장, 배구장, 정구장, 바드민턴장 그리고 필드에 따라 100m, 400m폭상주도로도 리용할수 있는 로라스케트장과 난도높은 여러개의 기교장, 아담한 치료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주변공지를 정리하고 운동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이 기뻐하게 야외운동장을 더 훌륭히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몸소 야외운동장형성안까지 보아주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 세심한 손길에 무한히 고무된 이들은 돌격대를 조직하고 야외운동장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사량은 방대하고 거기에 드는 로력과 자재도 아름답지만

이들은 건설을 단숨에 해체케 드높은 열의를 안고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적속도,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대형화물자동차를 수천대의 퇴적물을 처리하고 공지를 번듯하게 정리한 이들은 지난해 4월 마침내 본격적인 전투에 달라붙었다.

야외운동장이 운영을 시작할 때로부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있다.

우리와 만만 봉사일군인 오현미동무는 20일 남짓한 기간에 벌써 1만여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과 오락으로 즐거운 휴식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은 우리 야외운동장소식이 널리 퍼져 전화가 없없이 걸려오고있습니다. 1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직장체육경기기를 하러 오셨다는 공장일군도 있고 휴식일군은 가족이 다 와서 마음껏 운동을 하겠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인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궁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한다

종목인 축구경기이다. 1월의 월례대회를 이체롭게 펼쳐진 푸르른 인공잔디축구장에서 경기는 자못 치열했다. 류달리 축구기구가 뛰어나 호기심을 안고 몰아붙이던 아니게아니라 평양체육단의 축구선수들이었다. 경기의 발기자는 이곳 운동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는 서취선수였다. 일요일 휴식을 위해 집에 왔다가 멋진 축구운동장이 마음을 끌어당겨진화로 동무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었다. 경기를 해보니 체력면의 축구선수들 못지않고, 전문축구선수들이 리용하여도 손색없을 이렇게 훌륭한 운동장을 품어주어 근로자들에게 안겨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을 저도모르게 가슴이 젖어 들었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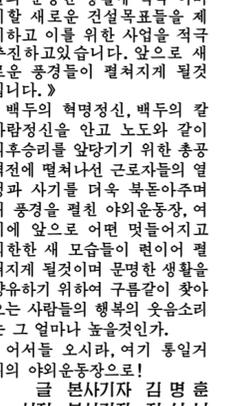
이것이 운동장내의 부를 세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많은 사색을 기울이고 품을 들이였다. 건축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기교장밀에 전자오락장을 꾸리고 인민들이 저녁에도 운동을 할수 있게 여러개의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야외식사를 할수 있게 편하게 꾸러놓은 공원이 인공산을 만들고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몇달만에 친지가되면 놀라운 현실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말한다.

놀라운 속도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내 조국의 매일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울것이라고.

소박한 이 목소리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깃들여있다.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세상만부를 다 안겨주신다는 경에 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총성의 맹세가 비껴있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천민사자들의 뜨거운 전정이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 부친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웠다.



세계패권을 쥔 조선의 공중교예, 억센 기상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공연

우리 교예배우들 제39차 몽떼카를로 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쟁취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제39차 몽떼카를로국제교예축전이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나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쉴란드, 로씨야, 스위스, 중국, 이탈리아, 에스파냐를 비롯한 16개 나라의 우수한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20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리 국립교예단의 교예배우들이 출연한 제39차 몽떼카를로 국제교예축전에 금상이 수여되었다.

교예배우들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위해 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군대와 투쟁하고있는 우리 근로자와 인민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줄 일념으로 경이로써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출연자들은 공중에서 난도가 높은 기술동작과 뛰어난 재주와 필적함으로써 판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에서 우리 교예배우들이 독특한 기교를 보여줄 때마다 관중심사원들과 축전참가자들, 판관자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

를 받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유아하며서도 아슬아슬한 동작으로 잘 펼쳐보였다. 나는 조선배우들의 공연에 완전히 반하여 심사원이라는것도 잊고 제일먼저 환성을 올렸다.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패권을 쥐고있다.

네메르란드 스타라다스트국제교예회사 사장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오늘 금상을 받은 조선교예배우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물론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수행하지 못한것으로서 체육에서 세계기록을 세운것이나 같다. 조선의 배우들이 이렇듯 훌륭한 기교동작을 보여준것은 20여년 후의 축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축전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보내준 귀국정부에 감사사를 드린다.

축전심사원인 미국세계교예회사 사장은 이렇게 소감을 토로하였다.

조선의 공중교예가 발전하였다는 말은 믿기 힘들지만 오늘이렇게 심사원으로서 조선의 공중교예작품을 직접 보게 된것은 처음이다. 이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쌍그네비행》에서 배우들이 날아다니는 동작 하나하나가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중심조형》은 조선인민의 아

를 받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유아하며서도 아슬아슬한 동작으로 잘 펼쳐보였다. 나는 조선배우들의 공연에 완전히 반하여 심사원이라는것도 잊고 제일먼저 환성을 올렸다.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패권을 쥐고있다.

네메르란드 스타라다스트국제교예회사 사장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오늘 금상을 받은 조선교예배우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물론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수행하지 못한것으로서 체육에서 세계기록을 세운것이나 같다. 조선의 배우들이 이렇듯 훌륭한 기교동작을 보여준것은 20여년 후의 축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축전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보내준 귀국정부에 감사사를 드린다.

축전심사원인 미국세계교예회사 사장은 이렇게 소감을 토로하였다.

조선의 공중교예가 발전하였다는 말은 믿기 힘들지만 오늘이렇게 심사원으로서 조선의 공중교예작품을 직접 보게 된것은 처음이다. 이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쌍그네비행》에서 배우들이 날아다니는 동작 하나하나가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중심조형》은 조선인민의 아

겨울철휴양조직을 잘 짜고들어

구월산유치에 자리잡고있는 안악군농민휴양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농업근로자들에게 대한 휴양조직을 잘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휴양소의 일군들은 올해 농민휴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휴양생들에게 푸짐한 식탁과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있다.

휴양생들은 구월산의 경치를 부각하고 력사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이곳을 인민의 유익지로 꾸려주기 위해 대천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휴양기간 장기, 옷

사랑과 정이 넘치는 내 나라

고무해준군 하였습시다. 제가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면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한 문명이 아니고, 경에 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받들어오라는 것은 우리 일군들의 웅망하는 본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대동강구역 문수2동 2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형욱어머니와 3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은옥어머니도 오랜 기간 저의 가정을 위해 사심없는 정을 기울였습니다. 때없이 집에 찾아

돌자의 편지

에로부터 건병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저를 친형제같은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고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속에는 보건소의 당일근로도 있으며 제가 살고있는 인민반과 동, 구역인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의 당일근로들은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저의 가정을 자주 찾아와 자기들이 마련한 보약재와 영양식품도 안겨주면서 제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포수훈련지도의 과학적연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의 시대인것만큼 체육도 과학화하여야 체육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안세우고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포수훈련지도의 과학화사업을 개시하여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데 큰 힘을 넣고있다.

도체 육체지도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선수후비양성기자들의 실례를 전방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포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대한 사회적관심을 부추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정실히 필요되는 정보설비

3일과 3시간

평천구역 북성초급중학교에서

세를 연구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훈련에 새롭고 도입한 방법이었다.

그날 훈련을 통하여 최영일동무는 생각되는바가 컸다. 학생들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우방을 앞세우면서 엄격한 요구성 하나만으로 훈련지도를 하더니 학생들이 지도교원의 동작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만 하였던것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기초기술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실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지장을 줄수 있었다. 최영일동무는 그날 밤 깊도록 여러 가지 참고자료들도 보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탐구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다음날에는 훈련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그러고서 훈련지도에 나타나는 좋은 점들을

과학중시를 비약의 열쇠로 틀어쥐고

이들은 현지에 나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해답기판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어 빠른 시일내에 도안의 모든 청소년체육학교에서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살려 중급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있는 가운데 순천시청소년체육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선수후비양성기자들에게 과학중시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있다.

순천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끈기있게 내민 결과 지난 한해에만도 10여명의 졸업생들이 중앙체육단에서 선발되어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 학교에서는 체육선수후비들을 전담있게 키우는 사업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

평안남도에서

이들은 현지에 나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해답기판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어 빠른 시일내에 도안의 모든 청소년체육학교에서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살려 중급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있는 가운데 순천시청소년체육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선수후비양성기자들에게 과학중시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있다.

순천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끈기있게 내민 결과 지난 한해에만도 10여명의 졸업생들이 중앙체육단에서 선발되어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 학교에서는 체육선수후비들을 전담있게 키우는 사업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

체육과학기술학습실 운영에 품을 붓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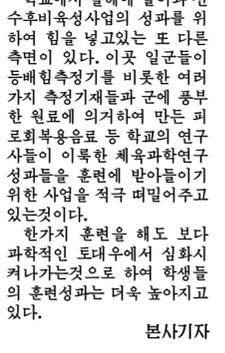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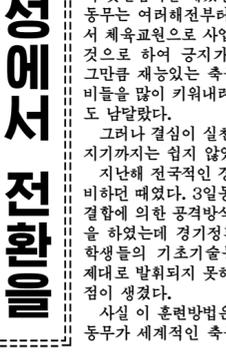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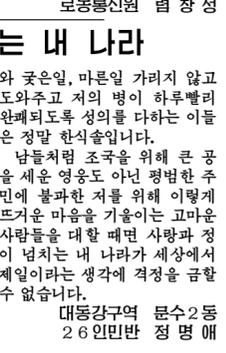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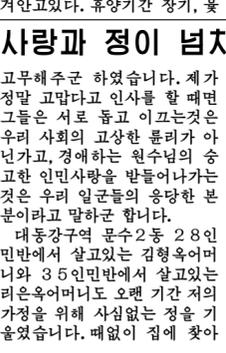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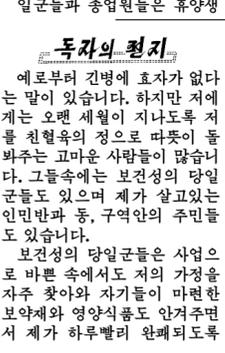
연안군청소년체육학교에서 체육과학기술학습실운영에 힘을 넣고있다.

림계운동부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부터가 체육과학기술학습실에서 세계체육과학술발전선배와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가지고 과학기술강연을 매주 2시간씩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설정하고 무조건 진행하고있다.

이 과정에 지도교원들의 안목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훈련지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는 체육과학기술학습실운영시간이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으로 되었다.

학교에서 올해에 들어와 선수후비육성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힘을 넣고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곳 일군들이 동배협정기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축전기체들과 그에 부응한 원리로 의거하여 만든 피로회복음료 등 동학도의 연구사들이 이룩한 체육과학연구성과를 훈련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떠맡어주고 있는것이다.

한가지 훈련을 해도 보다 과학적인 토대위에 서 심화시켜나가는것으로 하여 학생들의 훈련성과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단함은 조국통일운동의 튼튼한 도약대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자주통일의 대령으로 열어갈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 호소문은 온 민족을 격동시키고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의 승고한 리념 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하자! 이것이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 울려 퍼진 애국의 호소이다.

오늘의 조성된 현실은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료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의 호소대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 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며서 체제대결을 주하지 말고서 우리 민족과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김세월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열되었다.

우리 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지만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뿔수 없이 연결되어있다. 온 겨레가 70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것을 절절히 바라고있다.

외세에 의해 분열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필수적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이 민족내부에 불화와 분신, 대결을 조장하고 북남관계개선 의 흐름에 제동을 걸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더우기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배양으로 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기본본동일이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만이 반세기나 넘도록 갈져져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통일과 번영의 출로를 열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 참된 애국의 길이라는것은 역사가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는것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이다.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

도가 존재하고있다. 자기의 사상과 주장만 고집하는 경우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고 북남관계개선은 이루어질수 없다.

북남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협상, 관계개선이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협하여 내각개념을 버리고 정견과 주의주장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적극 지향해나서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중시하며 거기에 모든것을 복속시켜나간다면 능히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므로써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온 훌륭한 전통과 경험이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 및나오는 장으로 아로새겨진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채택은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주의주장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의 승고한 리념 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하는것은 올해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제이다.

올해는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해인 동지들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열다섯째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에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행사도 진행하고 계층별통일행사도 성대하게 열며 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것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도이다. 북과 남은 중요한 민족적사건들에 다양한 통일행사들을 공동으로 널리 조

진행하여 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합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겁게 차넘치게 하고 뜻깊은 올해를 진민족적인 대경사의 해로 빛내야 한다.

북남사이의 체육문화 등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를 적극 실현하여 민족적뉴데와 열매를 맺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추동해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로 호상 신뢰를 다지고 단합과 관계개선을 도모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북과 남에는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를 실현할것을 명시한 공동의 통일과도 있다. 그에 토대하여 접촉과 교류를 추진해나간다면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의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을것이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의 주제는 온 민족이다. 북남사이의 군사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소수 당국자와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북남당국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위한 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야 한다.

올해의 투쟁목표는 뚜렷하고 겨레의 통일기회는 충분하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외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걸려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띠 판하고있다.

온 겨레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 호소문을 피뎌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북남관계에서의 대진환, 대변혁은 물론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심철영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의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의회 대변인이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 발표된 호소문을 지지하여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이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업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신것은 겨레의 통일열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의회는 호소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호소문에서 밝힌 4가지 조항을 하루빨리 실천해나갈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신년사의 중대개인들이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에서 대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대결과 적대로 열어붙은 삼천리강토에 환희로운 화곡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중조선인들은 자주통일의 대령을 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전세계 분출하는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와 화해, 단합을 두려워하는 미국은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재중조선인들은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아고 있는 미국을 피수로 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선민족이라면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굳게 손잡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함께 통일의 대령으로 열어가야 한다.

재중조선인들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것처럼 남조선《정부》에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를 해를 행할것을 물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단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남조선당국은 민족국가에 버저린 효능을 새겨준 사대주의관념을 대탈취해 버리고 공화국과의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열다섯째,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호소문에 밝힌것대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의 승고한 리념 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해 나갈것이다.

재중조선인들은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통일애국의 불타는 일념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손잡고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합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겁게 차넘치게 하는데 기여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력대로 일본집권자들은 자기 나라를 《평화국가》로 자처하여왔다. 현 일본당국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년두기자회견이 끝나는 때 《일본은 전후 50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평화국가로서의 길은 앞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라고 떠들었다.

하다면 전범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여 과연 평화국가를 지향하려 하는가, 아니다.

일본이 추구하는것은 군국화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팽창, 전쟁을 추구하고있다.

년초부터 그런 징조들이 이모저모에서 나타나고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최대규모로 늘이고 《사위대》무력을 더욱 증강하고있다. 일본내각은 2015회계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20억US\$의 기록적인 국방예산을 승인하였다. 일본언론들은 그것이 3년간에 걸치는 연속적인 방위예산의 증대를 의미하며 역사상 가장 국방예산이라고 전하고있다.

일본방위예산은 국방예산이 주변에 정세변화에 따라 공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공격 및 해상, 평토를 《방위》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액수를 반영하고있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일본이 국방예산에 따라 도입, 구입하려는 장비들은 《방위》와는 거리가 먼것들이다. 일본은 신형수송기 《오스프레이》, 외판상륙기 가능한 수륙양용차, 《C-35》전투기, 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 잠수함잠수용비행기, 구축함구입과 미국과의 미사일방위체계개발 등에 국방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들은 예산이 미해병대와 유사한 부대를 위한 상륙수단들을 구입하는데 돌려질것이라는것도 숨기지 않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위해 세계대양을 폭주하게 돌아치는 미해병대를 분파하려는것다 무엇의 의미하는가는 누구나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일본정부의 국방예산은 아시아나라들과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것은 일본이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갈 준비가 되어있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 하는 시금적으로 되게 된다. 오늘날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방대한 전두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그것도 성취치 않아 국방예산을 최대규모로 늘이는것은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려 한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일본이 거지장스러운 《무기수출3원칙》을 휴지통에 쫓아버리고 무기수출확장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도 그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현 일본정부는 지난해 4월에 각료회의에서 무기수출금지제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에 일본은 자국이 국제군수시장에 진입한다는것을 세상에 정식 선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프시프공업, 히다찌, 후지 등 일본군수기업이 처음으로 프랑스 빠져서 개막된 무기전람회에도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이 제작한 새 전차와 자동보총 등 무기들이 전시되었다. 미프시프수출공업은 전람회에 새형의 장갑차모형을 내놓았으며 지뢰탐지기, 지뢰처리장치, 기상레이더 등 많은 종류의 생산품과 모형들을 내놓았다.

물론 일본이 국제무기시장에 뛰어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년간 일본의 군수기업들은 미국과 나토의 무기개발과 생산에 참여하였으며 《평화와 인도주의》의 미명하에 유관국가들에 무장장비를 제공하여왔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무기수출3원칙》은 하나의 시끄러운 장벽이 아닐수 없었다.

《무기수출3원칙》의 포기는 북수주의를 부르지는 군국주의피로에게 제침날개를 달아주고있다.

지금 일본은 어느 나라와 땅크리관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또 어떤 나라로부터 잠수함건조를 주문받는다 어떤 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더욱 로물까지 되는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문제는 일본이 주변나라들의 경계와 국제사회의 우려가 날 때 따라 높아지는 속에서도 군사대국화책동을 더욱 로물적으로 강행하는 외적요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미국의 부추김이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일본을 동격대로 써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미국은 손아래 동맹자를 위협한 길로 떠돌고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부추기고 그 들이 《무기수출3원칙》을 포기하도록 적극 추동하여왔다. 군사대국화의 구실을 찾고있는 일본반동들이 무력증강에 빠져들게 하는것은 미국의 부추김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책동을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광진적으로 질주하는것은 결코 우연치않은 일이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화와 제침책동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에서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물러오고있다.

메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교훈을 찾지 못하고 군국화의 길로 나가는것은 스스로 과함을 불러오는 어리석은짓이다.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는 예리하다.

독사는 허물을 벗어도 독이발을 뿜아버리지 않는 한 독사이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리현도

자주통일운동의 대령으로 열서기겠다

우리 민족과의 리념 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간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전세계 분출하는 우리 겨레의

독사는 허물을 벗어도 역시 독사다

서방의 이슬람교모독행위 단죄

• 튀르키예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21일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슬람교모독행위를 단죄할것을 서방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은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행위들을 중지하며 이를 위한 필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이슬람교도들에게 바라는 권리를 부여해주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이슬람교도나라들은 단결하여 자기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나가 20일 튀르키예국회의 의장과의 상봉식상에서 서방은 이슬람교도들을 모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독사

독사는 허물을 벗어도 독이발을 뿜아버리지 않는 한 독사이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리현도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 표시

이란이슬람교계급당 부총비서 하미드 레자 라라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 표시하였다.

그는 17일 이란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의 담화식상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을 지지

튀르키예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최근 자기 나라를 방문한 팔레스티나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튀르키예정부는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로 동부부근도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민족의 투쟁을 계속 지지 성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적인 빈부격차 심화

세계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져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국제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자들이 지구 전체 부의 48%를 독차지해 있었다.

보고서는 다음해에 가서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장성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5.7% 성장하였다.

20일 이 나라 수상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올해에 경제부문을 보다 쉼없이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여러 나라들 협조

캠보자와 타이가 16일 경제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늘이는 등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국경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협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앙골라와 민주콩고가 19일 도로와 철도, 항공 및 해상수송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4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문건들은 앙골라대통령의 민주콩고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

같은 날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 환경보호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앞서 18일 스리랑카와 인디아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총생산 감소

19일 포르투갈의 현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총생산자가 2000년보다 약 3만 6 500명 줄어들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 (2)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일본에서 조류독감 전파

일본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계속 전파되고있다.

15일 오카야마현동국은 현의 한 닭목장에서 28마리의 닭이 H5형종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되어 죽은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발병지역으로 부터 반경 3km의 범위가 감시구역으로 설정되었으나 닭알판매를 중지하고 약 20만마리의 닭들을 도살하는 등 대응이 벌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이슬람교모독행위 단죄

• 튀르키예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21일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슬람교모독행위를 단죄할것을 서방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은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행위들을 중지하며 이를 위한 필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이슬람교도들에게 바라는 권리를 부여해주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이슬람교도나라들은 단결하여 자기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나가 20일 튀르키예국회의 의장과의 상봉식상에서 서방은 이슬람교도들을 모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에블라비루스 전 파방지 성과

팔레스티네 최근 에블라비루스 전의 성과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18일 이 나라 보건상은 지난 42일동안 전국적으로 에블라비루스감염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공격작행

미국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격작행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19일 미군무인기가 북부와의 리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한 살점집을 목표로 2기의 미사일

에블라비루스 전 파방지 성과

팔레스티네 최근 에블라비루스 전의 성과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18일 이 나라 보건상은 지난 42일동안 전국적으로 에블라비루스감염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공격작행

미국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격작행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19일 미군무인기가 북부와의 리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한 살점집을 목표로 2기의 미사일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

조선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은 장본인

승남(정부)의 장관들에게 보다 가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지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정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사절을 파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정치배들이 북남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과 남 두 국회의 연합으로 통일할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는 더는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빠진 리승만《정권》을 동족상쟁에 내몰았으며 조선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시인 조기천이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